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알레르기?

을 기념식 대체 추모곡 제작 예산 책정 공모 방침 정해놓고 5월 단체 눈치보기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광주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공식 추모곡을 별도로 제작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 기념식 예산에 이미 새로운 추모곡 제작 예산 4800만원을 책정해놓은 만큼 공식적으로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다른 추모곡 제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처는 24일 '5·18 광주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쓰일 5·18 추모곡을 공모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해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광주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예산은 3억 2000만원(보조금 포함)으로, 보훈처는 이 가운데 4800만원을 추모곡 제작 공모비로 편성해 책정한 것.

보훈처는 공모 과정을 거쳐 33주년 기념식에서 부를 5·18 추모곡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공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5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모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통상 올해 예산은 전년도 5월부터 부처

→기획재정부→국회를 거쳐 검토되고 확정되는 만큼 지난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추모곡 제작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훈처는 지난 3일(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들과 만나 5·18 추모곡 공모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공모사업 진행 방침을 이미 해놓고 5월 단체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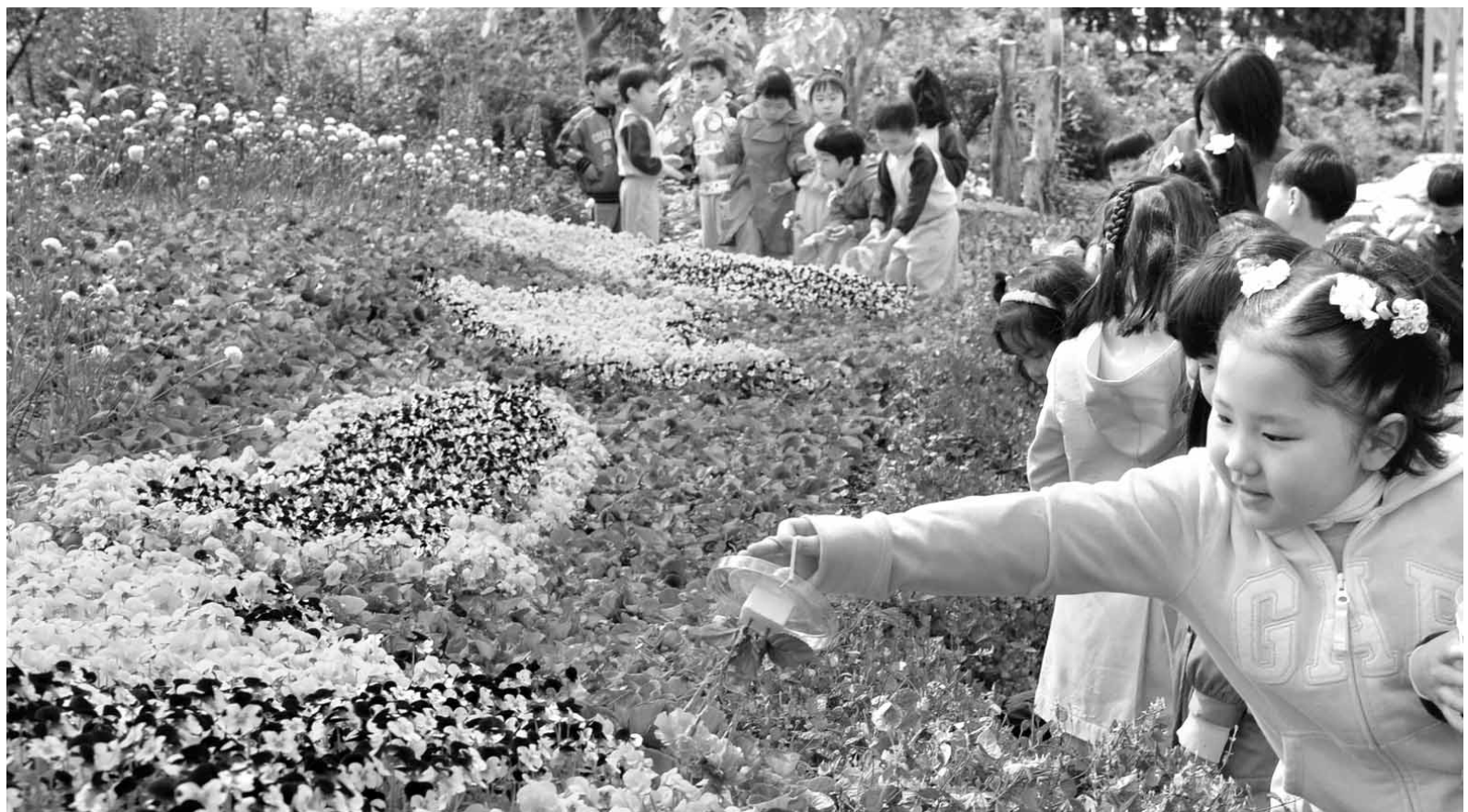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5·18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된다. 5·18 기념식 때마다 추모곡으로 제창돼 왔지만 지난 30주년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식순에서 배제돼 보훈처와 5월 관련 단체가 기념식을 각각 따로 치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보훈처의 5·18 기념식 추모곡 공모 예산 편성 사실이 알려지면서 5월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추모곡 공모와 관련해 보훈처 직원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대꾸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30년 전 불려온 추모곡을 못 부르게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5·18만 공식 노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대비 차원에서 (예산) 마련해놓은 것"이라며 "공모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결정된 것도 없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나비와 동심 제15회 함평 나비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나비를 날리며 즐거워 하고 있다. 나비축제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전서 호남선 철로 침하

서울~목포 새마을호 열차 지연 고객 불편

호남선 하행 철로 일부 구간의 침하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대전역 서대전역 사이 오정고가교에 놓인 호남선 하행선 철로가 내려앉았다. 코레일측

은 노면에서 20~30cm 정도로 철로 30~40미터 구간이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 구간을 지나갈 예정이던 용산발 목포행 새마을호(1101호) 열차는 현장 직원의 수신호로 멈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2시간여 동안 상·하행선 열차가 선로 하나로 운행, KTX를 포함한 열차 15대가 20~30분씩 지연 운행됐다.

코레일측은 오정고가교 내진 보강공사를 하던 중 고가교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시설물(슬라브)이 내려앉으면서 선로에 골극이 생긴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서 여고생 투신 사망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16·고1)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12층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A양은 최근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순환도로 음주운전 단속 백태

비오는데 설마... 핸들 잡았다 '허격'

비 오는 날과 고속도로, 순환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술에 취한 채 '죽음의 핸들'을 잡았던 간 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빗속에도 술에 만취한 채 고속도로와 순환도로를 질주할 정도로 음주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환대는 지난 23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동광산 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벌

리면,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운전자도 붙잡혔다.

함께 술을 마시고 오다 전광관에 뜬 단속 메시지를 보고 갓길에서 운전자를 바꿔 치기한 뒤 요금소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2명은 나란히 입건됐다.

동료를 위한다면 운전대를 바꿔 잡았던 20대 남성은 훈방 수치(0.04%)가 나왔지만 면허 정지 기간 중으로 만료되기까지 3일이 남아있는 사실이 적발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다른 운전자는 0.059%의 수치로 면허가 정지됐다.

대부분이 하이패스 통과

이례적인 빗길 고속도로 음주 단속으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달아나는 운전자와 경찰관의 추격전도 연출되는가 하면, 단속에 걸린 뒤 차를 가져가기 위해 대리기사로 수순문하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날 제2순환도로 확충통게이트 일대에서 음주 단속을 벌여 32명(면허 정지 15명·면허 취소 17명)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훈방 수치가 나오면 다시 차를 몰고가는 음주 운전자도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순환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규정 속도를 넘는 과속 운전이 적지 않아 대형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례적인 빗길 고속도로 음주 단속으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달아나는 운전자와 경찰관의 추격전도 연출되는가 하면, 단속에 걸린 뒤 차를 가져가기 위해 대리기사로 수순문하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날 제2순환도로 확충통게이트 일대에서 음주 단속을 벌여 32명(면허 정지 15명·면허 취소 17명)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훈방 수치가 나오면 다시 차를 몰고가는 음주 운전자도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순환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규정 속도를 넘는 과속 운전이 적지 않아 대형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 폐기물공장 폭발 원인은 화약포장재

24일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A 폐기물처리공장의 폭발과 화재 원인이 고무제질의 화약포장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공장 관계자는 이날 폭발을 일으킨 폐기물은 포탄에 사용되는 화약을 포장하는 고무제질의 포장재였다고 밝혔다. A 공장은 전남 경남 함안에 있는 B 포탄 화약 제조업체에서 '문제의 폐기물' 17t을 넘겨받았다.

A 공장은 폐기물을 넘겨받은 직후 1시간 동안 폐기처리 테스트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폭발 등 이상징후가 발견돼 해당 폐기물은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A 공장은 폐기물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 사고 당일 아침부터 수거 작업을 벌였고 오후 2시20분께 굴착기로 폐기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이날 폭발과 화재로 직원 이모(61)씨와 송모(38)씨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화상을 당했다.

나원침 (8803) 김종두



노인 여행비 가로챈 40대 검거

구례경찰은 25일 시골 노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중국 여행비를 가로챈 <광주일보 4월12일자 6면> 혐의(사기)로 양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제주도 A여행사 대표로 위장해 강모(70·구례군 산동면)씨 등에게 접근, 중국 4박 6일 여행을 미끼로 개인당 120여만원씩 71명에게 88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경철관 공모 의혹 '꽃샘사기' 실행

○법원이 경철관 공모 의혹이 일었던 '꽃샘 사기' 주변들에게 실행을 선고.

○24일 광주지법 형사 2단독(전우진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15일 광주시 서구 송촌동 한 식당에서 속칭 '꽃샘' 여성과 공모해 A씨(45)를 협박, 합의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류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재판부는 "치밀한 준비와 공범까지 가담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는데, 류씨 외에도 피해자와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

요리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CTB **헬로비전** www.cjhelo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헬로tv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